이소영의 '우리 지역, 우리 식물'

유달산의 노란 요정, 털머위

내 작업실 근처에는 제철 나물 반찬이 나오는 식당이 있다. 나는 이곳의 머위잎장아찌를 특별히 좋아한다. 봄에 딴 머위 잎을 간장에 달여 만드는데, 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내가 이 머위잎장아찌 맛을 본 후 나물이 가진 쌉싸름한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6년 전 우리나라 약용식물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에서 머위를 관찰한 적이 있다. 초봄 다른 식물이 잎을 틔우기 시작할 때 이들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운다.

머위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독특한 형태에 매료되어 주변에 모인다. 그러나 식탁 위의 머위에 익숙한 이들조차 꽃을 보고 머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어린 머위 꽃송이를 튀겨 먹기도 한다. '식물도감'이란 일본 영화에는 먹음직스러운 머위 꽃 튀김이 등장하는데, 꽃에서는 잎과 비슷한 쓴맛이 난다고 한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는 '머위'의 이름을 빌린 식물, 털머위가 자생한다. 머위와 털머위. 둘은 이름만으로는 한 가족 같지만, 이름만 비슷할 뿐 형태도 성격도 매우 다르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 즈음 털머위는 국화과다운 형태의 노란 꽃을 피운다. 이들의 크고 둥근 잎은 꼭 머위의 그것과 닮았다. 반면 긴 꽃대에 핀 노란 꽃은 곰취 꽃을 연상케 한다.

머위에서 '털'이 붙은 이 식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들 몸에 털이 어디 있냐 의아해 하곤 한다. 식물에는 막상 이름에서 드러나는 털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잎 뒷면과 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털이 밀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털머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주로 분포한다. 나는 지난 가을 목포 유달산 자락에서 털머위를 실컷 보았다. 목포에서 강의가 있어 목포 시내에 간 김에 가까운 유달산에 들렀다. 강의 시간까지 두어 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달리 시내 밖 다른 장소에 갈 이유가 없었다. 유달산에 오르자 산책로를 따라 심어진 금목서 근처에서 꽃 사진을 찍는 주민들이 보였다. 금목서 아래에선 털머위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유달산에는 털머위가 많다. 정자에 앉아 대화 중인 동네 어르신들 주변에, 운동하러 온 사람들 발길 끝에, 화장실 길목에, 산의 후미진 구석까지 털머위는 뿌리를 뻗고 있다. 사실 이들은 워낙 번식력이 좋은 식물이다. 바닷가의 척박한 환경에도 적응하여 바닷가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에 갯머위라고도 부른다.

나는 무릎을 꿇어 털머위 잎을 자세히 보았다. 가까이에서 본 이들 잎은 머위와 전혀 달랐다. 잎 뒷면의 털 유무를 굳이 살피지 않아도 털머위는 잎 색이 진녹색에 잎 앞면에는 코팅이 된 듯 광택이 있다. 잎의 두께도 비교적 두껍다. 바닷바람과 염분으로부터 접히고 찢기기 쉬운 넓은 잎을 지키려 이처럼 진화한 듯하다.

일본에는 털머위속의 다른 종도 있다. 종소명 히베르니플로룸(hiberniflorum). 이들 또한 겨우내 정원에서 사람들에게 화사한 노란 꽃을 선사한다. 일본 고치현의 마키노 식물원에는 가을과 겨울 유달산의 털머위처럼 이들 꽃이 널리 핀다. 식물 앞에는 식물학자 마키노 도미타로가 그린 도해도도 함께 그려져 있다. 이들을 명명하고 기록을 남긴 이가 바로 식물원의 주인공, 마키노 도미타로이기 때문이다. 그가 남기고 간 그림과 식물을 떠올리며, 나도 요즘 털머위를 스케치하고 있다.

11월이 되면 내가 사는 경기도에서는 꽃은커녕 너른 활엽수 잎조차 만날 수 없다. 나는 약 5개월 동안 이곳에서 초록의 너른 잎들을 그리워할테지만, 남도의 사람들, 적어도 목포의 시민들은 가까운 유달산에 올라 털머위와 그밖의 수많은 활엽수를 만날 수 있다. 시내에 이토록 오르기 좋은 산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사계절 내내 푸릇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늘 부럽다.

지금 털머위 줄기 끝에는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에는 털이 밀생한다. 많은 생물이 추위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 털머위는 온몸에 치밀하게 난 털로 자신을 지키고 멀리 또 많이 번식해 나갈 것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대비하기 어려운 안면마비

백 상 철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 국가대표 야구선수 김광현, 국가대표 가수 자우림 김윤아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안면 신경마비를 앓았다는 점이다.

안면 신경마비는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인 안면신경이 염증 등에 의해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로 스트레스나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추운 외부 환경에 오래 노출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얼굴의 마비가 발생하기 수 일에서 하루 전 마비된 얼굴의 귀 뒤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증상 초기에 국을 먹을 때 한쪽으로 국물이 새거나 양치할 때 물이 경사진 방향으로 나가는 등의 증상을 먼저 느끼게 된다. 또 눈이 감기지 않거나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인중선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웃을 때 한쪽으로만 웃게 되는 등 한쪽 얼굴로만 마비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미각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고, 눈이 껄끄러운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비 증상은 하루에서 사흘에 걸쳐 악화되고 일주일 정도까지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 이후 증상의 변화가 전혀 없는 평행기를 거쳐 회복기에 들어가게 된다. 병의 초기 치료를 해도 증상 변화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는 환자들이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병의 필수적인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신경 손상 진행을 막고 회복기에 들었을 때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에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얼굴의 한쪽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중추성 뇌질환을 의심하게 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뇌졸중으로 표현되는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이마의 주름은 지어지고, 한쪽 손발의 소력감을 동반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 귓바퀴나 귀이개 안쪽에 수포가 발생하는 이성대상포진인 경우 일반 말초성 안면마비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평행기에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의 손상 정도를 파악해 예후를 예상할 수 있다. 신경 손상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발병일로부터 1~2개월 정도의 경과를 거쳐 회복하지만, 신경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2년의 경과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마비의 경우 20% 정도는 마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고령의 환자이거나 고혈압, 당뇨를 동반한 경우, 미각저하 증상을 동반한 경우, 급속하고 완전한 마비인 경우, 회복기에도 회복이 시작되지 않고 회복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지연형 회복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가 늦을 경우에는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안면마비의 치료는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를 발병 초기에 복용하고 천부 열자극 요법과 물리치료 마사지 요법을 권장한다. 눈이 감기지 않은 경우 수면 중 눈을 비비거나 자극을 통해 각막염이나 각막 찰과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대를 착용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

한의학에서는 말초성 안면 신경마비를 구안와사(口眼㖞斜)라고 하여 신체가 허약한 상태에서 풍한(風寒)의 사기가 침입해 기혈이 정체돼 일어난 것으로 본다. 침입한 풍한의 사기를 몰아내고 견인된 근육을 풀어주며 특히 목과 어깨, 후두부까지 가는 근육을 풀어주어 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신경의 회복을 돕는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안면 신경마비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많이 나와 있다.

안면 신경마비의 경우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고 빠른 치료가 좋은 예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얼굴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의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되고 뇌질환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는 증상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을 찾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기 고

'옷 만들다' 국가대표가 된다고?

전 성 연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원장

패션을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상담을 온 학부모님들의 표정은 대체로 좋지 않았다. 공부는 안 하고 옷을 만들겠다니 답답했던 모양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최근 학부모들은 되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 싶다"며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다. 취미가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된다. 옷을 잘 만들면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흔히 패션 하면 패션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패션은 광범위한 분야다. 디자이너는 의류를 기획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이다. 그 디자인을 형태화하는 건 모델리스트(패턴사)와 샘플사다. 이 밖에도 브랜드 콘셉트 방향을 제시하는 패션기획MD, 만들어진 옷을 매장에 배치하고 판매를 기획하는 패션영업MD 등이 있고 최근에는 공예가, 유튜버까지 패션 관련 직업은 다양하고 심지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패션을 배울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하다. 대학의 경우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 (학과명)이름이 다를 뿐이다. 학과명 보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교과목 비중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복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의복구성학이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자격증의 종류도 많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양복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의류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있다. 관련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에서 패션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주지역의 패션업계도 호황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우수한 기술인력이 든든하게 업계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근래엔 패션 관련 업체, 제조공장과 원단, 부자재 업체가 즐비했던 충장로의 상권이 힘이 약해져 우수한 기술인력이 타 지역이나 타 직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희망의 불씨처럼 2023년 광주에서 의상디자인직종 국가대표가 배출되었고, 대한민국 대표로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을 출전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배출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불씨가 되었다. 올해 4월 예정된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이번 달 26일까지 접수)엔 의상디자인직종 참가 신청이 예년보다 몰리고 있다.

매년 4월에 치러지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8~9월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얻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7개 시·도에서 50개 직종 선수들의 기술 수준을 겨루는 대회로 2025년도에는 광주시에서 치러진다. 이를 위해 2000명에 가까운 참가 인원이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선수 중 만17~22세 연령의 선수는 평가전을 거쳐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는다. 의상디자인 직종은 1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패션테크니컬 직종으로 참가한다. 국제기능올림픽 메달 수상자는 상금은 물론 병역대체와 연구지원금의 특전이 주어지며 국제심사위원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2024년 출전 예정인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메달의 영광을 안아 패션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숙련기술인 포털 마이스터넷에서 검색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술교육에 관심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받으면서 훈련할 수 있다. 최근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가능하니 학교 교육과 병행하여 기술교육도 익힐 수 있다.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 훈련기관들은 정부의 평가를 거친 기관들로 신뢰할 만하다.

의류학을 전공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지금은 패션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의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 덕분에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옷을 만들면서 행복해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좋아하는 일로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자.

社 說

깜깜이 선거구에 정치 신인 '불공정 게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0여 일이 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보다는 비례대표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경우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구 획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광주는 변함이 없지만 전남에선 서부권에서 1곳이 줄고 동부권에서 1곳이 늘었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해체돼 영암이 해남·완도·진도에 묶이고 무안은 나주·화순에, 신안은 목포에 편입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2개 선거구에서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고 광양·곡성·구례로 조정됐다.

이렇다보니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이 어떤 선거구를 대상으로 운동을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운동을 한다지만 선거구가 최종 확정될때까지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0년 21대때는 선거일 39일전에, 2016년 20대때는 선거일 42일전에야 확정됐다. 법률 제정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모집 등에서도 정치 신인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많다. 선거 시작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 입장에선 '불공정 게임'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 적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선거구를 확정하길 바란다. 나아가 소속 정당 주도로 합동 연설회나 토론회를 마련해 후보별 정치 비전 등을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하필 이때인가

정부가 12년 동안 유지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찌 살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만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는 총 10곳이며 준대규모 점포(SSM)는 8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제에 따라 한 달에 2회씩 휴일에 문을 닫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로선 영업일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제도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금기시됐던 논의의 빗장이 풀렸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영업과 밀접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대형마트 휴무일엔 인구 유입이 적잖이 이뤄졌으나,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공휴일이 평일로 변경되면 그마저도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광주등 호남권에선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매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전통시장·소형마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권고도 없이 갑자기 폐지를 발표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바닥인 현시점에 영세 상인들의 적(敵)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침투한 식자재 마트와 쿠팡 등 온라인 업체인데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 상권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 커머스 등 '유통 공룡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소상공인들과 상의 한번 없이 의무휴업 규제를 풀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無等鼓

플레이리스트

요즘 배경 음악처럼 듣는 게 '홀로 마감하는 박물관 직원'이라는 플레이리스트다. 슈베르트 '세레나데', 쇼팽 '발라드 1번' 등을 듣고 있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유튜버 'by the way'의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인 '봄비를 기다렸던 고궁 박물관 직원', '여름밤을 기다린 천문대 직원'은 봄과 여름이 되면 들어볼 참이다.

음악을 듣는 방법은 변한다. 테이프, CD를 거쳐 음원사이트 스트리밍이 대세더니, 요즘은 플레이리스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비슷한 감성의 곡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 중 나의 '결'과 딱 맞는 것을 발견하면, 마치 선물을 받은 듯하다.

78만명이 구독하는 'LEEPLAY'는 900만뷰를 넘긴 '우리 나중에 파리여행 가면 에펠탑 보면서 같이 듣자'가 유명하다. 나는 '이거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려고 일부러 돌아가는 중'을 즐겨듣는데, 좋아하던 음반을 구입하면 차를 타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던 옛 기억이 난다.

검정치마, 잔나비 등의 음악을 만나는 '니 생각이 나기 딱 좋은 시간이다, 새벽인디 모음'이나 '류이치 사카모토가 단골 식당을 위해 선곡한 현대음악&재즈' 도 가끔 듣는 리스트다.

플레이리스트는 책과도 관계가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최진영의 '구의 증명'을 볼 때마다 왜 2015년 발간 소설이 지금 인기인 걸까 궁금했는데, 300만을 넘긴 '구의 증명' 리스트를 듣고 책을 접한 이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24일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뮤직 클래시컬'은 임윤찬, 조성진, 정재일 등이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다.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3번' 등을 선정한 임윤찬은 "음악을 통해 우리는 산 정상에 부는 바람을 상상해 보고, 꽃이 피는 소리도 듣고,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곡을 넣고, 어떤 이름을 달아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겠다. 나의 리스트는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영화 '헤드윅' 중 'Origin of love', 팻 맨시니의 'James', 자우림의 노래 등을 묶은 '신나는 일을 상상하며 걸을 때'정도가 좋을 것 같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